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1 pp. 96-102, 2019

https://doi.org/10.5762/KAIS.2019.20.1.96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중장년층의 사회복지 전공 선택 동기 요인에 관한 연구

배나래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 Study on the Motivating Factors Affecting the Middle-Aged People in Choosing Major in Social Welfare

Na-Rae Bae
Dept. of Social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전공 선택 이유를 살펴보고, 사회복지전공교육의 효과적인 환경을 구성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학부생 41명을 대상으로 전공 선택에 관한 동기요인에 대해 질적 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리적 목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사회복지 전공을 선택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둘째,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공을 선택하였다. 셋째 사회복지실천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로서 사회적 기여에 의한 전공 선택 동기요인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가정환경 경험에 의한 동기요인이다.

사회복지전공교육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학습전략 방안이다. 첫째,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자를 위해 목적지향형 학습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 실천기술과 전문지식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의 배치가 필요하다. 둘째,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전공을 선택한 학습자를 위한 교육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세대통합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실천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기여를 위해 전공을 선택한 학생의 교육은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지역사회에서 전문 자원봉사자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이 구성되어야 하겠다. 넷째, 개인적 경험과 가정환경에 의한 동기를 위해 사회복지전공을 선택한 학습자를 위해 소외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들이 학습한 사회복지전공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basic information to make effective environments for social welfare education, revealing the reasons why students choose the social welfare major at Konyang Cyber University. We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with 41 students in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at Konyang Cyber University.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most students chose their major to get a certificate that can benefit them in the near future. Second, they chose their major as a way to achieve renown, and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ir lives. Third, they desired to contribute to society through their social work. Finally, individual experiences and family background were also motives. Based on the research, to improve learning outcomes in social welfare education, the necessary learning strategies are as follows. First, goal-oriented learning is necessary for students who want to get the certificate. A practical curriculum needs to contain both practical skills and professional knowledge applicable to the social work field. Second, education for students who choose the major to gain fame, and to develop their lives, requires generation-integrated education to help them review their lives and find their own meaning in life. Third, education for students who choose the major for a practical social contribution has to contain volunteer training that can lead them to be professional volunteers in society. Fourth, education for students who choose the major based on their personal experiences and their family background needs to deal with case management, which discovers the recipients who need help in society and the students who can achieve visible outcomes after all.

Keywords : Cyber University, Middle-Aged, Major Selection Motivation, Social Work Education, Social Welfare Major

*Corresponding Author : Na-Rae Bae(KonYang Cyber Univ.)
Tel: +82-42-722-0081 email: victory0302@kycu.ac.kr
Received November 6, 2018 Revised November 21, 2018
Accepted January 4, 2019 Published January 31, 2019

1. 서론

대중과 정부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증대, 정보기술의 발달로 원격교육이 새로운 교육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고,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지식의 신속한 획득, 응용, 적용을 위한 끊임없는 개인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재교육을 희망하고 있고, 사이버대학은 지식정보화사회의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 및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을 제공함으로서 평생교육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사이버대학교는 2001년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설립된 이후 2007년 개정된 고등교육법(법률 제8638호)에 의거해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되면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하였다. 우리나라 사이버대학교의 발전을 교육부 통계로 살펴보면, 2001년 전국 9개 사이버대학교로 시작하였고, 입학정원은 6,100명, 재학생수는 6,220명이였다. 2013년 사이버대학교는 21개교로 증가하였고, 입학정원은 33,410명이고, 재학생수는 99,246명으로 2001년에 비해 대학의 수는 2배 이상 늘었고, 재학생수는 15배 이상 증가 하였다. 2017년 사이버대학교 수는 2013년과 동일한 21개교이며, 입학정원도 33,410명으로 동일 하였으나, 재학생수는 105,549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대한민국 고등교육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성장을 보인 것이다[1][2].

사이버대학교의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학력소지자이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고, 일반 대학에 비해 4분의1 수준의 등록금으로 학비가 저렴하여 저비용 고효율적 교육방식이다. 수업은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교육을 한다. 그리고 수업 및 모든 학사시스템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이버대학교는 과거 전통적인 교육방식인 오프라인 강의실, 교수자 중심의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교육방식으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사이버강의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 빠르게 변하고 고도화 되어가는 시대 요구에 대처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시의적절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수업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아 학습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교육 분야는 1980년대 이후 사람들의 복지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학습자 스스로가 사회복지 교육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양적으로 확대된 사회복지교육은 질적인 제고의 요구가 요청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복지교육에 대한 질적인 측면에서의 평가와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노상학의 연구에서 〔3〕 사회복지직은 모든 사람에게나 적절하며 또 모든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부분의 전문직처럼 사회복지전문직도 역량을 갖추어 직무수행 능력과 기술, 인성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전문직은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기능도 필요하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과 이념을 바탕으로 한 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중장년층 학생들의 사회복지 전공 선택이유를 살펴보고 차후 사회복지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복지교육 강의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학습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사이버대학교의 성장과 발전

사이버대학교는 2001년 9개 대학 6,100명의 입학정원으로 첫 학생모집을 시작하였다. 2005년 17개 대학 23,550명, 2013년 21개 대학 33,410명의 입학생을 보유한 규모로 성장하였다. 2017년 21개 대학 총 재학생수는 105,549명으로 급성장을 보였다. 사이버대학교의 성장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대학교는 경력단절없이 경제활동과 교육활동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다. 둘째, 사이버대학교는 직장인, 만학도, 주부 등 사회적 재교육 수요자에게 적합한 새로운 교육형태를 제공한다. 셋째, 사이버대학교는 과거 학벌위주의 교육에서 보다 실질적 교육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격증 수요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대학교는 브랜디드 교육(Blended Learning), 유비쿼터스(Ubiquitous)교육환경, 모바일 수강, 수요자 선택형 교육 등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1][2].

2.2 사이버대학교의 사회복지교육의 특성

최근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증대로 사회복지교

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4차산업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사회복지 교과과정 구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전문가로서의 내실 있는 대학교육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사이버대학교는 직장인, 만학도, 주부 등 다양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고등교육을 전달하는 기관으로서, 매년 많은 수의 사회복지사를 배출하고 있다. 2018년 21개 사이버대학교 중 18개 학교에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2개 학교는 사회복지유사학과를 개설하고 있어 사회복지교육에 대한 학습자들의 교육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대학교에서 배출하는 사회복지전문가에 대한 질적 평가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9〕. 따라서 실제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2.3 사회복지전공 선택 동기

사회복지 전공을 선택하는 동기는 매우 다양하다. 사회복지전공을 선택하는 주요한 요인은 첫째, 사회복지 가치관과 일치하는 개인의 가치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적 가치관에 의한 선택이라는 것이다〔4〕. 사회복지적 가치관에 입각한 개인적 가치는 이타주의(Altruism)〔14〕와 자선적 사랑(Philanthropic love of people)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적 가치관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사회복지전공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전공을 선택하는 두 번째 동기는 사회복지실천을 바탕으로 한 타인을 위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욕구라는 것이다. 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3〕. 사회복지전공을 선택하는 세 번째 동기는 개인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존엄성을 훼손당하고 아픔을 겪은 경험과 동일한 어려움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고 싶어서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동기이다〔6〕〔7〕〔8〕. 사회복지전공을 선택하는 마지막 동기는 다른 대상으로부터 스스로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며,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전공을 선택한다고 하였다〔5〕.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중장년층 학생들의 사회복지 전공 선택 동기를 살펴보고자, K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이 부적절한 7명을 제외한 41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7년 6월 19일~2017년 7월 14일까지이며, 개별 심층면담을 하였다.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반구조적 질문을 사용하였다. 면담과정은 연구대상자들에게 양해를 구해 녹음하고 내용을 전사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87.8%, 남성이 12.2%이다. 연령은 40세~49세가 41.0%, 50세~59세가 35.9%, 60세~69세는 20.5%, 70세이상은 2.6%순이다. 최종학력은 고졸이 80.5%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졸(12.2%), 대졸이상(7.3%)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현재 학년은 1학년이 56.1%로 가장 많았고, 3학년과 4학년이 각각 22.0%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중하’가 63.4%, ‘중상’이 19.5%, ‘하’가 14.6%, ‘상’이 2.4%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가 인지한 전반적 삶의 질의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56.1%, ‘보통이다’가 31.7%, ‘불만족이다’가 12.2%순으로 나타났다.

Table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1)

Characteristic	Division	N	%
Gender	Male	5	12.2
	Female	36	87.8
Age	40~49 Years	16	41.0
	50~59 Years	14	35.9
	60~69 Years	10	20.5
	Over 70 Years	1	2.6
Final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33	80.5
	College Graduation	5	12.2
	Above University Graduation	3	7.3
Current Grade	1 Grade	23	56.1
	3 Grade	9	22.0
	4 Grade	9	22.0
Economic Condition	Upper Class	1	2.4
	Middle-Class	8	19.5
	Middle and Lower Layers	26	63.4
	Lower Layers	6	14.6
Overall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5	12.2
	Usually	13	31.7
	Satisfied	23	56.1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선택 동기 요인에 대해 개방형질문을 하였으며, 노상학의 〔3〕 연구에 따라 동기요인을 분류해 보았다. 첫 번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적 가치관에 의한 동기이며, 두 번째는 사회복지실천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기여에 의한 선택 동기이다. 세 번째는 개인의 가정환경 경험에 의한 선택 동기이며, 마지막으로 인정받기 위한 수단 및 삶의 향상의 동기로 분류하였다(Table2). 선택 동기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전공 선택과 인정받기 위한 수단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의한 전공 선택 동기가 각각 16명의 사례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실천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기여에 의한 동기요인이 5명의 사례, 개인의 가정환경 경험에 의한 사례가 4명으로 나타났다.

Table 2. Selection Factors of Social Welfare Major

Category	Case Number
Personal Values for Profit(16)	2,3,6,10,16,18,20,21,22,24,29,30,31,32,35,36
Social Contribution Based on Social Welfare Practice(5)	7,8,9,11,15
Personal Experience and Home Eenvironment(4)	23,26,27,39,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Means for Recognition(16)	1,4,5,12,13,14,17,19,25,28,33,34,37,38,40,41

4.2 사회복지 전공 선택 동기 요인

4.2.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적 가치관

회사 정년 이후 사회생활을 지속하고 싶어서 선택을 했어요. 기회가 된다면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회복지사로 역할을 하고 싶어서요(사례2)

나이가 들수록 힘든 일을 못하고, 몸으로 노동하는 것은 자신도 없고요.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이수해서 관리적인 쪽으로 생활해서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싶어서 선택했어요(사례3)

사회복지가 무엇인지도 궁금했고요. 자격증도 취득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요(사례6)

노후에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까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사례10)

요양시설이나 센터를 개소하고 싶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사례16)

저의 꿈은 복지시설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하지요(사례18)

재취업을 희망하여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사례20)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사례21)

사회복지공부를 해서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요. 사회복지관련으로 직장을 구하고 싶어요(사례22)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서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사례24)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복지시스템도 알고 싶구요. 장차 노인복지관련 기관을 운영해보고 싶습니다(사례29)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관심으로 시작을 해서 재취업에 대한 생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재취업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겠지요(사례30)

자격증을 취득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해서요. 취업이 유망하다고 해서요(사례31)

새로운 직장을 가지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사례32)

제2의 인생을 위해서요. 자격증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노려 볼 수 있지 않을까요?(사례35)

현재 직장을 다니는데, 스펙도 쌓고 투잡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서요(사례36)

4.2.2 사회복지실천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로서 사회적 기여

늦었지만, 사회복지사로 전문가로서 다른 사람을 돕

고 싶어서요(사례7)

제가 사는 지역에 외국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봉사하고 다문화가정사역을 하고 싶어서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사례8)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공부를 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자 합니다(사례11)

사회복지공부를 하여 전문적인 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사례9)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공부 후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사례15)

4.2.3 개인의 가정환경 경험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쉬울것이니까요(사례39)

어려운 청소년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불우하게 자라서 힘든 청소년들을 보면 돕고 싶습니다.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공부를 해야 하니까요(사례23)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연히 사회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구요. 저는 불행했지만 그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어요(사례26)

아픈 아이가 있어요. 복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시작했구요. 저와 같은 부모들은 정보가 많이 부족해요.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무슨 법이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방법을 구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러다 제가 공부해서 스스로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애아이를 둔 부모로서 돕고 싶고, 정확한 정보를 나눠주고 싶습니다(사례27)

4.2.4 인정받기 위한 수단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인생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인생에서 미래를 위해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학과를 선택했어요(사례1)

늦었지만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공부로 힘들어하는 우리아이들에게 “함께”라는 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로 힘들어 할 때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해라라고 소리만 질렀는데, 저도 공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도 공부를 한다는 모습,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요(사례4)

자기개발을 통한 미래에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만들어보기 위해서요(사례5)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욱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위해 공부를 선택했습니다(사례12)

공부를 하면서 나를 알고 더 나은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요(사례13)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사례14)

배움의 기회를 놓쳐서 세상이 급변하는데 많이 뒤처지는 느낌과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고 싶어서요(사례17)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 하게 되었지요. 공부에 대한 아쉬움으로 사회복지학과에서 다시 공부를 합니다. 배움에서 즐거움을 얻고 있고, 저 자신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사례19)

저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는데, 공부를 하면 나를 찾아가는데 조금 더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사례25)

삶의 질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삶의 질을 높여보려고요. 공부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던데 아직 찾고 있는 중입니다(사례28)

대학졸업자라는 타이틀이 갖고 싶었습니다. 사회복지공부도 하고 싶었구요. 대학졸업장을 갖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았어요(사례33)

어려서 상황이 안되서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 못한 것이 한입니다. 한을 풀어보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공부를 하며 한도 풀어보고 저도 찾아 보려고 합니다(사례34)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요(사례37)

좀 더 나은 나를 찾고, 사회복지사가 되면 멋있잖아요(사례38)

대학진학에 열망도 있었고 잘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잘 늙어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히다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사례40)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부를 하지 못해서 공부를 더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습니다. 노인에 대한 이해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였습니다. 사회복지수업을 하면 복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디가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당히 말하는 나를 보고 싶었습니다. 공부하면 당당히 말할 수 있겠지요(사례41)

5. 결론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중장년층 학생들의 사회복지 전공 선택이유를 살펴보고 차후 사회복지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복지교육 강의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학습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장년층 학생들의 사회복지전공 선택 이유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던 점은 사회복지학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선택하고 사회복지전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인품이나 성향이 사회복지실천에 일치된다고 생각하거나 이타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개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공선택 이유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과 이해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는 없다. 연민을 바탕으로 한 동기나 선한가치를 지닌 사람의 선한 행동의 표현으로 동기를 찾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 받기 위한 동기도 나타났다〔3〕.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사회복지전공 선택 동기의 분류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으로 영리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 전공 선택과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의한 전공 선택 동기가 각각 16명의 사례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실천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로서 사회적 기여에 의한 동기요인이 5명의 사례, 개인의 가정환경 경험에 의한 사례가 4명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학생들의 사회복지전공 선택이유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전공 선택 요인은 Houle〔13〕의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 유형이론과 접목해서 보면, 목적지향형 학습참여동기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학습의 이유가 직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학습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전공을 선택하는 요인도 성인학습자 참여동기 유형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자아성장을 위해 학습을 해나간다는 것이다〔13〕. 그리고 사회복지실천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기여에 의한 전공 선택동기와 개인적 경험과 가정환경에 따른 전공 선택동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구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만족을 느끼는 활동지향형 학습참여동기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교육 강의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학습전략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전공을 선택하는 높은 동기 중에 하나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지향형 학습목적이 높았는데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한 실천기술과 전문지식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의 배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실천기술이나 사회복지현장 자원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교육내용이 마련되어야겠다. 또한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맞춤형 사회복지교육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교수자가 중심이 되는 강의식 수업방식에서 학습자와 교류하며 현장을 파악하고 익힐 수 있는 현장중심의 양방형 교육이 되어 한다. 둘째,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공 선택자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 보고 인생의 의미를 정리 해보는 교육으로 사회복지의 윤리와 가치교육을 개인의 복지동기와 학업에 접목하여 사회복지전공의 선택이 값진 의미와 정서적 삶의질 향상에 풍성한 가치를 줄 것 이라는 의미를

수업에 녹여 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 사회복지교육이 막연한 감상적인 동기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을 배우면서 사람을 돕고 지지하기 위해 전문가적인 가치관과 지식, 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서 지역사회에 전문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 선행을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는 사회복지홍보와 마케팅 교육도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실천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기여에 의한 동기요인을 위한 전공자의 교육은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교육커리큘럼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지역사회 현장 실무자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복지 현장가들을 도울 수 있고 전문적인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교육과정 도 필요하다. 넷째, 개인적 경험과 가정환경에 의한 동기를 위해 소외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하여 그들이 공부한 사회복지전공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사회 사례관리자 발굴과 지원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전문가이다.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 철학과 가치, 윤리 이념 등을 기본으로 한 사회복지교육이 이루어져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전공선택 동기요인이 무엇이든간에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장년층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현 시점에서 사회복지 교과내용과 교육방법을 수준별, 분야별로 세분화, 표준화하여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3〕.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2017학년 1학기에 연구자가 재직하고 강의 하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재학생만을 연구참여자로 표집한 것으로 인해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향후 많은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References

[1] University Reform and Future Direction of Cyber University, Ministry of Education,2014.

[2] 2018 KERIS ISSUE REPORT Analysis of cyber university domestic and overseas trends and overseas case studies,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18.

[3] Sang-Hak Ro, “A Study on Motivational Factors of Social Welfare Major”,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kangnam University, vol 6, pp 69-100, 1998.

[4] Rubin, A. Johnson, P.J.,“Direct practice interests of entering MSW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for Social Work, vol 20 no 2, pp5-16, 1984.

[5] Hess, D.Williams, M.,“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value stances of students in two choices of graduate study”, Journal of Education for Social Work, vol10 no3, pp42-49, 1974.

[6] Hayes, D.D. Varley, B.,“Impact of social work education on students' values”, Social Work vol10 no3, pp40-46, 1965.

[7] Kidneigh, J.C. Lundberg,H.W.,“Are social work students different?”, Social Work vol 3, pp57-61, 1958.

[8] Rompf, E.L. Royse, D.,“Choice of socia work as a career : Possible influence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vol30 no2, pp163-171, 1994.

[9] Hyo-yeon Lim, Soon Min Lee,“A Study Exploring the Relationship of Educational Participatory Motivation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among Adult Social Work Students of a Cyber University”,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4 no10, pp403-415, 2014.

[10] Myung-Sook Park, “A Study on the Students' Satisfaction with Cyber Education: A Case Study on the Sections of Consumer Education in the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ractical Arts education, vol.19 no.4 pp257-271, 2007.

[11] Hye-Seong Jeon, “Improvement of E-Learning Efficacy by Self-Assessment”,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1 no.2, pp487-494, 2011.

[12] Eunjung Jang, Wanyoung Ryoo, “A case study of the students` course evaluation and the learning achievement in cyber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21 no.2, pp103—126, 2005.

[13] C.O.Houle,“The inquiring mind”,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1.

[14] Hyeong-Soo Kim, Yong-Seob Kim, Seon-Goo Kim, “Effect of the Choice Motivation and the Self-identity of Students Who Majored in Social Welfare on the Attitude to the Disabled”, Social Science Studies, vol 37, no 2, pp 135-158, 2013.

배 나 래(Na-Rae Bae) **[종신회원]**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07년 2월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족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07년 9월 ~ 2008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술연구교수
- 2008년 8월 ~ 2011년 2월 :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초빙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 문화복지, 문화교육컨텐츠, 문화산업